

경의선 강매역 2014년 7월까지 건설

- 수탁사업으로 오는 4월 착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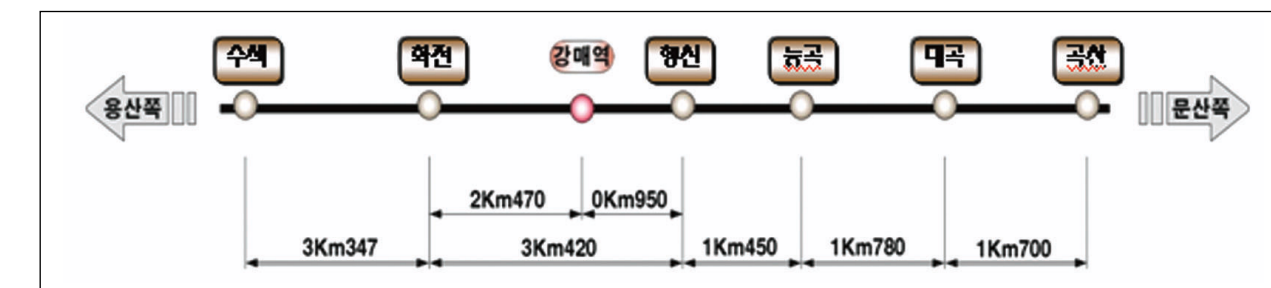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대 지역주민들에게 경의선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강매역(가칭)을 2014년 7월까지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의선 강매역은 공단이 LH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전액 납부 받아 건설하는 수탁사업으로 2010년 7월 역 신설에 따른 협약에 이어 그해 12월부터(당초 227억원) 실시설계를 하면서 역 신설이 이뤄지게 됐다.

본부는 ▲옥외데크 삭제 ▲철거자재 재활용 ▲감리통합발주 ▲국·공유지 무상사용 검토 등 수송수요에 맞는 시설규모 최적화로 41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해 지난달 말 총사업비를 186억원으로 확정, 이달 중 입찰공고를 거쳐 오는 4월 착공한다.

이현정 광역민자철도처장은 "강매역이 2014년 7월 완공되면 서울도심 접근성이 좋아지고 수도권 전철 및 고속철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 주요공정 추진일정



철도 지하역사 이용객 중심으로 설계 개선

- 계단·통로 등을 최소화...이용 편의성 향상 및 사업비 절감 -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지하 40~50m에 위치한 철도역사의 계단·통로 등 수직 이동 공간을 경사터널로 변경해 이동 동선을 단축하고 사업비도 절감하는 등 이용객 중심으로 설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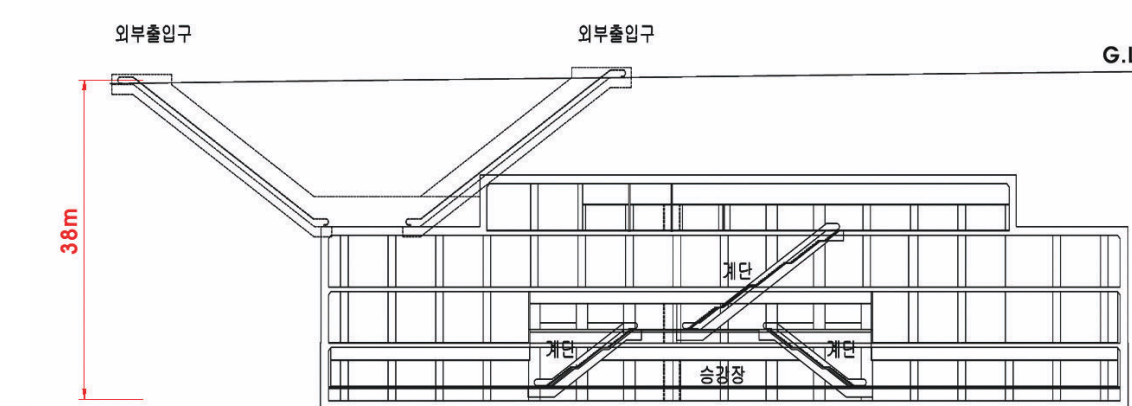
지하 40m에 설치한 분당선 구룡역의 경우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6개층을 계단(12개소) 및 통로로 이동하도록 건설돼 이용객의 이동이 크게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됐다. 특히 계단과 통로가 전체면적의 50%를 차지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컸다.

이에 따라 본부는 지하역사에 대해 승강장과 대합실을 분리하고 계단과 통로를 경사터널로 변경하도록 설계를 개선, 신안산선 북선전철 도림사거리역사에 적용한 결과, 이용객의 동선이 기존 120m에서 80m로 단축된 데다 개선 전 대비 6% 정도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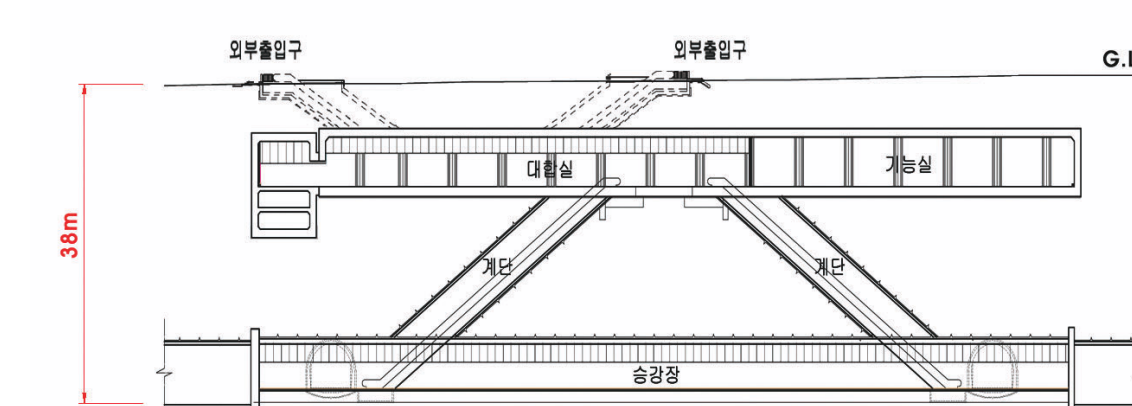
조순형 건축설비처장은 "앞으로도 건설예정인 GTX역사 등에도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역사 설계관리를 철저히 해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하고 과잉설계 및 기능을 무시한 디자인 위주의 설계는 부실설점을 부여하는 등 특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사 개선 전, 후 단면도

○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개선 전)



○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개선 후)



전기·궤도분야 1조5778억원 발주

- 상반기 조기발주 및 중소기업제품 2432억원 구매로 경제살리기 앞장서 -

기술본부(본부장 최강윤)는 올해 수도권고속철도 전기·궤도공사 등 공사 52건, 용역 57건, 구매 117건 등 총 226건에 1조5778억원 규모의 사업을 공개경쟁 입찰로 신규 발주한다.

본부는 이 중 150건 1조226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고 국산화에 성공한 전자선 용품 153종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 4종, 중소기업 특화제품 19종 등 2432억원 규모의 제품을 중소기업에서 구매해 국민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13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내역

구분	금액(억원)
전자선 용품 국산화	538
기술개발제품	229
중소기업 특화제품	1,665
합계	2,432

본부는 보유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을 활용해 설계를 직접 수행하고 감리 용역 통합 및 전자선 용품 국산화로 국가예산 190억원을 절감할 계획도 세웠다.

사업별로는 수도권·호남고속철도 등 고속철도 3개 사업에 9364억원, 부산~울산 북선전철 등 일반철도 18개 사업에 4977억원, 수원~인천 북선전철 등 광역철도 9개 사업에 1162억원 등이다.

‘13년도 전기·궤도분야 사업별 발주현황

발주사업명	사업비(억원)	발주시기
경부고속철도 도심구간 전기·궤도공사	1,345	3월, 7월
호남고속철도 전기공사	2,253	4월, 6월
수도권고속철도 전기공사	6,194	3월, 6월
부산-울산 등 일반철도 18개 사업 전기·궤도공사	4,971	3월 ~ 11월
수원-인천 등 광역철도 9개 사업 전기·궤도공사	1,015	3월 ~ 11월
합계	15,778	

국유철도시설 활용한 태양광 발전개발사업 본격화

- 동부건설 컨소시엄 사업추진협약 체결 -

시설사업본부는 지난 20일 철도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동부건설(주)과 SK텔레콤(주)이 참여하는 동부건설 컨소시엄과 '출자회사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했다.

본부는 유류재산인 역사 승강장 지붕 60개소, 차량기지 3개소 지붕 및 주차장, 철도건설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된 사토장 4개소를 태양광 발전을 위한 부지로 임대해 주고 사업주관자인 동부건설 컨소시엄과 공동출자회사를 설립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후 20년간 발전설비를 운영한다.

출자회사는 철도시설 67개소의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17MW)을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판매하게 된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공단은 20년 동안 약 65억원의 철도시설 점유료와 이익배당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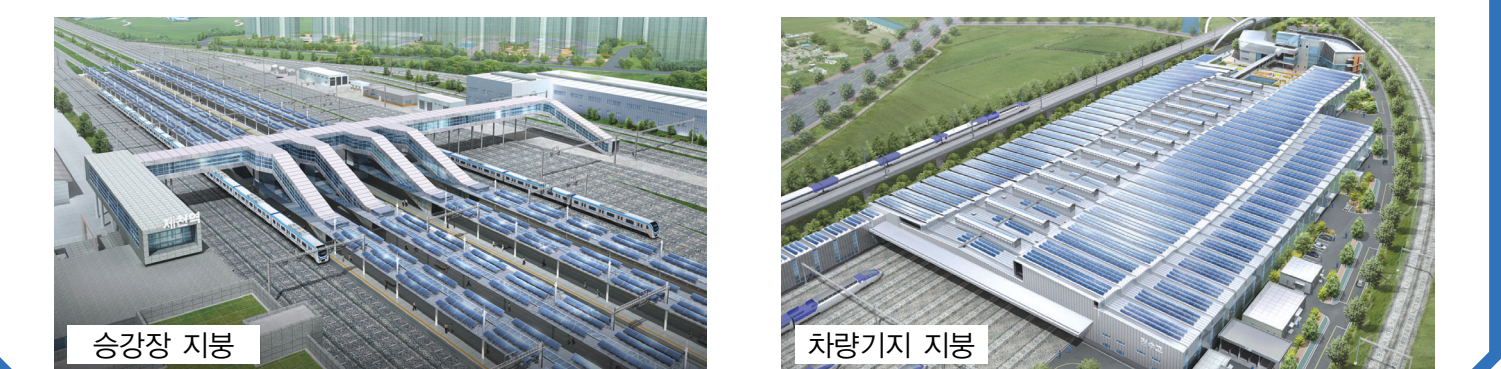
이번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약 6000가구(4인 가구 기준)의 연간 전력사용량에 해당하고, 연간 약 410만kWh의 유류절약, 약 1만3000톤의 CO2 감소, 여의도 3배 면적인 854만㎡의 산림조성 효과가 있다.

본부 관계자는 "철도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구현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앞으로 철도시설 및 유류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규 수익창출로 공단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2012년1월 1일 시행)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 의무화

조감도



개통 사업 통합공정회의 시행

- 개통 전부터 통합공정관리 시행 및 회의 개최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지난 5일 안락~기장(14.92km)간 운행선 변경을 위한 통합공정회의를 시행했다.

지금까지는 개통 당해연도에 전 분야 계약자가 참여하는 통합공정회의를 시행해 왔으나 공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통 2~3년 전부터 통합공정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선행공사의 공정지연 방지와 후속공사의 적기발주를 도모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따라서 영남본부는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개통(2014년), 신경주~포항 KTX 직결선 개통(2014년), 안락~기장간 운행선 변경(2013년)의 3개 사업에 대해 매월 통합공정회의를 시행할 계획이다.

〈영남본부 송재일 기자〉



『2013년 영남본부 부장 워크숍』 시행

- 중점업무 추진 전략 직원 공유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지난 13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11개 부서의 '13년 중점업무 추진전략 공유 및 관리자 마인드 함양을 위해 『제1회 영남본부 부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건설처 사업총괄부의 'Triple-win 공생 발전 전략'을 시작으로 'KTX 연결선 등 개통공정 관리 방안', '재산목표 달성방안', '청렴도 향상 방안' 등 올해 중점 추진할 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 본부장은 "작년에 추진한 토론회에서도 좋은 성과가 창출되었기에 이번에도 좋은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면밀히 세워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그는 "또한 3월에 시행 예정인 차장 이하 직원 토론회에서도 좋은 개선방안이 많이 발표돼 공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남본부가 되자"고 덧붙였다.

〈영남본부 윤증원 기자〉

철도역사 낭비공간 없애 '최적화'

- 작년 개통역사 일부 '과잉 건설'... 고객공간은 넓혀 -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지난해 개통한 왕십리~선릉 등 3개 사업 9개 역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 역사 내 역무시설 이용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신설역에 반영해 하여 낭비 없이 최적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다.

철도역사의 역무시설 규모는 설계 시 철도 운영자의 역 운영계획을 반영해 결정되지만, 이번 실태조사 대상 역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실제 근무인력이 19%(9개 역사, 역무원 기준 37~30명) 적게 운영되고 있어 일부 과잉 건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부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공 단계 업무절차를 개선해 설계뿐 아니라 시공 때도 철도운영자의 역 운영계획을 제공받아 역무공간을 재배치하고 발생하는 여유 공간은 축소, 낭비공간을 없애 이용자 편의시설로 전환해 사용할 계획이다.

조순형 건축설비처장은 "향후 개통하는 철도역사도 지속적으로 역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해 역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철도 이용객 중심으로 역사를 건설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 부지 활용해 귀농 지원

- 농촌 일자리 마련...2만2000㎡ 연면적 경작지 활용 -

시설사업본부는 지난 13일 활동도가 낮지만 경작이 가능한 농촌의 철도 유류부지를 귀농자에게 연면적경작지로 지원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연초생산협동조합(KTGO:Korea Tobacco Growers Organization) 중 앙회와 체결했다.

이에 따라 본부는 시범적으로 비도심지역과 산간 등 장래 활용가치가 낮은 유류부지 2만2000㎡를 연초초 경작지로 우선 제공한다. 또 연협 중앙회는 연초생산협동조합을 활용해 귀농자를 모집, 경작기술 및 시설자금을 지원해 약 22명(1인당 경작면적: 1000㎡)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부는 이번 시범사업 착수와 동시에 전국에 걸쳐 가능한 철도 유류부지를 전수 조사, 귀농자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지역을 확대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귀농자들의 조기 정착에 일조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철도 유류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철도 유류부지 귀농지원사업 양해각서 체결식

